

광주 비정규직 절반 '임금' 문제로 고민

“외국인인데 퇴사 뒤에도 사업주가 밀린 월급과 퇴직금을 6개월째 주지 않고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까지 했는데도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당직 노동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광주지역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퇴직금과 임금체불 등에 대해 가장 많은 고충을 토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8일 광주비정규직지원센터가 공개한 '2017년 노동상당사례집'에 따르면 지난해 12월1일부터 올해 11월 30일까지 센터를 통해 이뤄진 981회의 상담 중 488회(49.75%)가 임금에 대한 상담이었다.

임금 상담 중 퇴직금 미지급이

男 '산업재해' · 女 '근로시간' 상담 상담자 연령대 50대 이상이 대다수

15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임금체불 117건, 연월차 수당 미지급 46건, 시간의 수당 미지급 40건, 주휴수당 39건 순이다.

다음으로는 부당 징계해고와 인사이동에 대한 상담이 94건(9.58%)을 차지했으며 근로계약 준수여부가 75회(7.65%)로 뒤를 이었다.

비정규직 상담자 중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과 관련된 상담은 성별에 상관없이 비슷했지만 여성의 경우 '근

로시간'과 '4대보험'에 대한 상담이 높았으며 남성은 '산업안전'과 '산업재해'에 대한 상담이 많았다.

연령별로는 50대가 143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60대 이상 96명, 40대 80명, 30대 50명, 20대 41명이며 10대도 5명이 상담을 받았다.

상담 연령대 중 20대 이상은 임금, 산업재해, 근로계약, 징계 등 다양한 형태로 이뤄졌지만 10대의 경우 임금과 근로계약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업종별로는 아파트 경비원 등이 포함된 사업시설관리분야가 89건(13%)으로 가장 많았으며 제조업 83건(12%), 공공행정·사회보장행정 80건(11.56%), 보건·사회복지서비스 57건(8%), 건설업 49건(7%) 순이다.

고용형태는 '기간정함없음'이 176건(25%)을 차지했으며 하청·용역·위탁 116건(17%), 기간제 88건(13%) 순으로 접수됐다.

기간정함없음의 경우 주로 영세 식당이나 공장, 가게 등지에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근무를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최남규 기자

진료 잘하는 중소전문 병원 3기 109곳 선정

특정 질환이나 과목의 진료를 잘하는 중소전문병원, '제3기(2018~2020년) 전문병원' 109곳이 선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7월 전문병원 지정에 신청한 의료기관 127곳 중 서류심사, 현지조사, 전문병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같이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전문병원은 중소병원 중 특정질환·과목에 전문성을 갖춘 의료기관으로, 대형병원으로 경증 환자 돌림 현상이 발생하는 것을 완화하기 위해 2011년 도입됐다.

이번 3기 전문병원은 관절·뇌혈관·대장항문·수지접합·심장·알코올·유방·척추·화상·주산기·한방척추 등 11개 질환에서 71개 기관, 산부인·신경·안·외·이비인후·재활의학·한방부인과 등 7개 진료과목에서 38개 기관이 뽑혔다.



로봇으로 처리하는 폭발물 28일 오후 경기도 용인시 제2군수지원사령부 예하부대 연병장에서 EOD 폭발물 처리반 대원들이 폭발물처리로봇을 활용, 가상의 폭발물을 처리하는 훈련을 하고 있다.

경찰청, 내년부터 피고소인이 원하면 '수사관 교체'

내년부터 경찰에서 조사받는 피의자나 피해자가 수사의 공정성이 의심될 경우 수사관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기업 비자금이나 점·판매권 등을 둘러싼 사건과 같이 수사에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사건들도 최장 1년 이내에 종결해야 한다.

경찰청은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내년 1월2일부터 경찰수사 제척·기피·회피 제도와 장기 기피(인지)수사 일몰제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두 제도는 경찰개혁위원회 수사분야 20개 권고안 중 일선에 적용하는 첫 개혁과제다. 경찰청은 훈령인 범죄수사규칙과 경찰내사처리규칙을 개정해 근거를 마련했다.

제척·기피·회피 제도는 범죄수사규칙 제8조부터 제8조5항에 관련규칙이 신설됐다.

'제척'은 현행 형사소송법상 법원에 적용되는 제도를 경찰에 도입한 것이다. 경찰관이 사건당사자와 친족 등 특정관계에 있는 경우 조사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직무에서 배제하는 제도다.

'기피'는 2011년부터 직접으로 시행중인 수사관 교체요청제도를 규칙에 명문화한 것이다. 불공정한 수사를 할 우려가 있을 경우 고소인·피고소인 등이 경찰 수사관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회피'는 경찰관이 수사의 공정성을 잃을 사유가 있는 경우 스스로 직무에서 물러나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다. 기존 범죄수사규칙에 규정돼 있던 제도는 이번 훈령 개정을 통해 절차와 요건을 보다 구체화해 실효성을 높였다.

장기 기피(인지) 수사 일몰제는

경찰내사처리규칙과 범죄수사규칙에 각각 관련 규정이 신설됐다.

원칙적으로 내사는 6개월, 수사는 1년을 기준으로 기일이 경과하면 수사부서장의 책임하에 종결해야 한다. 다만 혐의 입증에 임박한 경우 등 예외적으로 내사·수사를 계속해야 할 객관적인 사유가 있을 경우 승인을 거쳐 기일연장이 가능하다.

경찰청 관계자는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해야 하는 고소·고발 사건과 달리 수사기일이 정해져 있지 않은 인지사건은 장기화되는 경향이 있다"며 "장기수사로 인해 발생하는 수사대상자 지위의 불안정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지사건 일몰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뉴스스

IS, 동영상으로 미국내 테러 독려

허술한 총기법을 활용한 미국내 테러 활동을 독려하는 급진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의 동영상 공개됐다.

27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IS가 제작한 동영상에서 미국식 영어를 구사하는 조직원은 "미국에서 라이플이나 권총을 쉽게 얻을 수 있다는 점을 활용하라"며 "무슬림에 대한 그들의 공포가 커지고 그들의 이슬람 증오가 계속 드러나도록 이교도들에게 총알을 뿌려라"고 말했다.

무장 이슬람 단체의 활동을 추적하는 SITE 인텔리전스 그룹은 이날 온라인 동영상 사본을 공개했다. 아무 살리 알리리키라는 이름을 쓰는 이 조직원은 뉴욕 지역 여왕의 영어를 구사했으며 전투복 차림에 권총을 차고 있었다.

그는 동영상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로마의 개"로 부르면서 "당신은 십자군과 같은 언어로 백악관에 들어갔다. 가짜 미디어가 당신이 발언의 수위를 낮추도록 압박하고 있을 뿐"이라고 언급했다.

니컬러스 라스무센 미국 국가테러센터 국장은 지난 주 CNN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허술한 총기법이 테러 공격으로부터 국가를 보호하는데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라스무센 국장은 "폭력적인 극단주의자들이 (미국 내에서) 치명적인 무기에 접근하는데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더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 국토안보부는 이 동영상에 대해 "온라인을 통한 수많은 테러 위협에 대해 파악하고 있으며, 유관기관과 협의해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 시나봉 화산 재폭발

인도네시아 시나봉 화산이 27일 또 다시 폭발했다고 현지 언론 자카르타글로브가 보도했다.

국가재난방지청 이날 성명에서 북자카르타에 있는 시나봉 화산이 폭발해 4600m 높이까지 화산재가 분출했다고 밝혔다.

사상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재난방지청 대변인은 자카르타글로브와의 전화인터뷰에서 "화산재가 화산 동쪽 경사면에 있는 마을 여러 곳에 떨어지고 있다"며 "다행히도 사망자는 보고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당국은 화산 경보를 2015년 6월 이후 최고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다. 당국은 또한 대피지역을 화산 인근 반경 7km로 확대했다.

국가재난방지청 대변인은 "시나봉 화산 강 상류쪽에 사는 주민들은 용암을 조심해야 한다"며 용암이 강줄기를 따라 흘러내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당국은 현재 베케라, 시마록, 스카메리아 등 마을 3곳에 370가구가 이미 대피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나머지 가구들도 연말까지 대피시킬 예정이다.

최근 시나봉 화산이 자주 폭발해 3331가구가 주민들이 피해를 봤다. 올해 들어서 2월부터 간헐적으로 폭발한 시나봉 화산은 지난 2일에도 폭발했다.

미 동북부 폭설과 혹한 계속...최고 165cm

미국 동북부에 크리스마스에 시작된 폭설과 혹한이 27일에도 계속되고 있다. 펜실베이니아의 이리(Erie)시에는 최고 87cm의 강설량을 기록했고 앞으로 며칠은 외출이 어려울 정도로 혹한이 계속될 것으로 예보돼 주민들이 힘든 겨울을 보내고 있다.

미 중부에서 시작된 이번 한파가 동부로 확산되면서 기상 당국은 북극으로부터 물러온 한파로 저체온증과 동상에 걸릴 위험이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뉴잉글랜드 대부분 지역과 펜실베이니아 북부, 뉴욕에는 강풍주의보도 내려졌다. 중부 대평원 북부와 5대호 지역의 각 도시와 주들은 영하 10도~18도까지의 혹한이 이번 주말에서 새해 초까지 계속될 것으로 예보되었다.

미국 기상청은 28일에도 일부 지방에서는 강풍으로 인해 체감기온이 영하 20도 이하로 떨어질 것이라며 한파주의보를 내렸다.

성탄절인 25일 최대 87cm에 달하는 적설량을 기록한 이리 시는 전국에서 가장 눈이 많이 오는 5대호 지역 도시의 20cm 기록을 이미 깨고도 28일 다시 87cm의 눈이 더 올것으로 예보되면서 비상사태가 선포되었다.

이 곳에서 크리스마스 전날부터 내린 눈의 총 적설량은 165cm에 달하며 주민들은 얼어붙는 강추위 속에서 눈에 파묻힌 집과 차를 파내는 일에 매달려 있다.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아제는 포경상입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 올림픽 2018. 02. 09~02. 25(17일간)
• 패럴림픽 2018. 03. 09~03. 18(10일간)

PyeongChang 2018
PyeongChang 2018
Paralympic Winter Games